

# 주최자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제 7 회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3 년, 한국 제주도에서 시작한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 장소를 번갈아가며 매 년 충실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한일양국 복지관계단체의 여러분들께서 참여하는, 일주일에 걸친 차세대 사회복지 지도자를 위한 “한 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 일 양국의 실행위원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여기 마산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을, 일본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젊은 소셜워커들이 참가하여, 서로 배우며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노엔(真如苑)의 개조(開祖)인 고(故)이토 신조(伊藤真乘) 교주(教主)의 유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맑고 깨끗한 “마음”, 즉 불성(仏性)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사(大事)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복(至福)과 세계평화”를 목표로 하는 본 재단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기 위해 오늘의 “한 일마음의 교류 프로그램”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에 “마음”이란 말을 넣어 활동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21 세기는 문화, 습관, 언어, 인류, 종교,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우애의 다리를 놓아 융화(融和)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호, 복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급선무입니다. 일본에서는 간호·개호직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등 해외의 힘을 빌려 보충하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사람과 융화·협조해나간다”라는 인간본래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운 곳부터 널리 해외까지 공헌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심포지움 주제는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사회복지인재 국제교류를 향하여”입니다. 올해 심포지움과 대학원생 및 젊은 소셜워커의 교류 성과가 이 프로그램을 동아시아전체에 더욱 넓혀 각국 지역과의 유대와 융화를 지향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이 연계를 깊이 하여 “아시아모델을 구축해나가지”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로 뻗치는 우수한 지도자가 배출될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主催者ごあいさつ



伊藤 勲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理事長

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2003年、韓国済州島から出発し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韓国と日本で会場を交互もちながら、年々充実して今日を迎えております。ことに、昨年から、日韓両国の福祉関係団体の諸先生方にご参画いただき、内容をより拡大し、一週間にわたる「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としたことで、大きな成果を挙げております。これも関係各位のお力添えあつてのことと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

本年は、ここ馬山に、韓国と日本の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まり、課題を深めつつ、日本から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派遣し、学び、交流するプログラムとして進めております。

ユニバーサル財団は、仏教教団宗教法人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教主の遺志により設立されました。仏教では、誰もが持つ清らかな「こころ」、すなわち仏性というものを互いに認め合い、尊重することの大事を説いております。「人類の至福と世界平和」を目標とする当財団では、一人ひとりの「こころ」を大切にすべく、本日の「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のように、多くのプログラムに「こころ」の言葉を入れ、活動に生かしております。

21世紀は、文化、習慣、言語、人種、宗教、国境を越え、あらゆる人と人との関係に友愛の橋を架けて、融和世界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大事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それは介護、福祉におきましても同様で、そのためにはグローバル化に対応できる人材の育成が急務となっております。日本では看護・介護職の大幅な不足が見通され、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タイ、ベトナムなど、海外の方たちの力を借りて補うという方針を進めております。韓国も同じような道を進んでいか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れだけに、専門職の皆様には、「人と融和・協調していく」という人間本来の持つ温かい心をもって、身近なところから広く海外まで貢献していただきたいと願います。

本日のシンポジウムは「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社会福祉人材国際交流に向けて」となっております。本年のシンポジウムと大学院生および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交流の成果が、さらにプログラムを東アジア全体に広げ、各国の地域の結びつきと融和を目指すべく、まず韓国と日本が連携を深め「アジアモデル」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ここから発信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を通して、世界に羽ばたく優秀な指導者が多く育まれることを心より願ひた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